



**GWANGJU**  
FOOTBALL CLUB

2012 No.6  
GWANGJU F.C  
Matchday Program

# VIEW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 내 2층 TEL : 062) 373-7733



광주FC, 서울 꺾고  
오월의 희망 선물한다



**GWANGJU**  
FOOTBALL CLUB

VS



FC서울

2012.05.19 15:00 광주월드컵경기장

WWW.GWANJUFC.COM TWITTER @GWANGJU\_FC FACEBOOK @gwangjufc me2day /gjfc0





**GWANGJU**  
FOOTBALL CLUB

## POINT of VIEW



K리그 막내 광주가 올 시즌 우승후보 서울을 제물삼아 오월의 희망을 노래한다. 광주FC는 19일 오후3시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FC서울과 현대오일뱅크 2012 K리그 1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최근 8경기 무승이라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광주로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문전에서 화려한 개인기로 패널티킥을 유도해낸 복이와 이를 침착하게 성공시킨 김동섭의 활약으로 전반전을 1:0으로 리드해 나갔지만 후반 4실점하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당초 시즌 초반 5경기 무패행진을 이끌었던 유종현, 정우인, 임하람이 수비를 두텁게 할 예정이었으나 임하람의 갑작스런 근육부상이 아쉬웠다. 또 전술의 핵심 이승기, 주앙파울로가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밸런스 유지가 어려웠다. 하지만 복덩이 복이의 활약으로 올 시즌 수원의 두 번째 홈 실점을 이끄는 등 '원정팀의 무덤'이라는 빅버드에서 당당하게 맞서며 서울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광주 캡틴 김은선은 "시련은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의 특권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간절함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며 "경기장을 찾아주신 많은 축구팬과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경기일자	2011년도 상대전적
04 / 24	광주 1 : 0 서울 (승)
07 / 23	광주 1 : 4 서울 (패)

### 관전 포인트 광주 vs 서울 (광주, 05/19 15:00)

- 최근 6경기 연속 득점
- 최근 8경기 연속 무승
- 광주FC K리그 득점 4위 (18골)
- 광주FC 홈 승률 50%, 원정 승률 42.9%

## '서울 보양식', 맛났지!

지난해 서울꺀고 3연승



지난해 서울은 광주에게 아주 비싸고 영양가 좋은 보양식이었다.

당시에도 8경기 무승의 늪에 빠져 있던 광주는 디펜딩 챔피언 서울을 1:0으로 꺀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서울을 이끌던 황보관 감독이 스스로 물러났고, 광주는 이후 대전과 상무를 잇달아 꺀으며 2011 시즌 다크호스로 우뚝섰다. 올 시즌 광주 선수단은 소폭의 변화만 있었다. 강팀을 요리하는 방법을 터득한 광주는 지난해 찌릿했던 승리의 기억을 되살려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서울 보양식'을 맛보여 줄 계획이다. 당시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주앙파울로는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한 만큼 다시 한 번 승리의 기쁨을 재현하겠다"고 밝혔다.

### 2012 시즌 광주FC 공격포인트

이름	골	도움
김동섭	2	
김수범		2
김은선	4	
박현	1	
복이	4	2
슈바	1	
이승기		4
임선영	1	
조우진	1	
주앙파울로	4	3

\*백화점 · 패션 스토어 이마트

# 광주신세계 TOWN

1995년 4월 10일 광주법인 설립!  
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입니다.

- 2002년 광주·전남기업 중 여덟번째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 광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모든 금융활동이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 지역상품 판로확대 등 밀착 마케팅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신세계





**GWANGJU**  
FOOTBALL CLUB



이승기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의 이승기와 주앙파울로가 돌아온다. 그것도 체력과 컨디션을 한껏 끌어올렸다. 광주는 지난 수원전 두 선수의 존재가 팀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실히 느꼈다. 상대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서울이기에 두 선수의 활약이 기대된다. 최근 광주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승기(4도움)와 주앙파울로(4골 3도움)는 지난 시즌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결승골을 합작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승기와 박기동의 플레이도 눈여겨 볼만 다. 이승기는 시즌 초반 박기동이 부상에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난 시즌 둘은 환상의 콤비로 7득점을 만들어 낸바 있다.

반면 서울은 데몰리션(데안·몰리나) 콤비가 출격한다. 최용수호의 간판은 바로 데안과 몰리나다. 데안이 없으면 데안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둘에 대한 의지력이 강하다. 데안과 몰리나는 현재 팀의 17골 가운데 13득점을 올렸다.

모든 골은 그들의 발끝에서 나온 셈이다. 매 원정 때마다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서울은 데몰리션이 살아나며 최근 2승을 챙겼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묶이면 속수무책 당한다는 것. 지난 시즌 데안은 김수범에게 공공 묶이며 이렇다할 활약을 하지 못했다.

광주가 올시즌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을 잡고 5월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앙파울로

## 체력보충·컨디션 UP... 이승기·주앙파울로 콤비



### 어린이재단, 광주 박병모 단장에 감사패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아름다운 나눔 실천

광주FC 박병모단장이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은 19일 오후 3시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앞서 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아름다운 나눔에 적극 참여한 광주 박병모 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광주FC가 구단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약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

단'을 정하고 나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재단 측은 소외된 아동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각종 복지활동에 적극 지원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 조성하고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2010년 창단과 함께 어린이재단과 후원 협약을 맺고 축구에 꿈을 가진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무료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을 함께 나눠요 등의 각종행사에 지역기업과 함께 연간 1천만원 이상을 후원하고 있다. 또 무등육아원, 영신원 등 아동양육시설에도 운동화, 유니폼, 축구공 등 각종 필요 물품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광주FC 박병모 단장은 "꿈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소외·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이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정상에 등극하라! 경제강국 KOREA!

온갖 악조건과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와 집념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화-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힘든 경제한파 속에서도  
정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제강국 KOREA를 향해 - 다시한번 FIGHTING!

KIR  광주은행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사외이사 김홍빈

업종간이 없는 장애인으로 사상 첫 남극 원순례(시프) 성공  
장애인 사상 첫 남극 원순례(시프) 성공  
장애인 사상 첫 남극 원순례(시프) 성공

다산재민원(민원) 남극 원순례(시프) 성공에 등극하여 광주은행 형기를 들고 기념 촬영한 모습



## “사회적 약자에게 꿈과 희망을...”

광주FC, 구단 5대 목표인 사랑나눔 실천 눈길  
1000인의 기적 정기납금 · 무등육아원 희망선사

시민구단 광주FC가 구단 5대목표인 사회적 약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1000인의 기적'을 이룬 정기납금과 함께 희망의 나비를 날리며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정기납금은 선천성 담도폐쇄증 수술 후유증으로 간경화와 복수, 비장비대, 정맥류 등이 찾아와 간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고, 광주시와 지역민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광주는 곤충학자인 정군을 위해 희망의 나비날리기

행사를 마련했고, 선수들이 홈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10만원씩 적립 되는 사랑의 골 이벤트 모금액 중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9일에는 구단 외국인 서포터즈인 인터FC와 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육아원을 찾아 어린이날 모금한 성금 100여만원과 자전거, 사인볼 등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올해 광주가 국내최초로 시작한 방과

후 영어축구교실의 코치인 게리 파(Gary Farr)가 주축이 돼 광주FC 직원들과 엠마 돌리(Emma Dooley), 데릴 슬레이트(Darrell Slater), 프랜시스 휴잇(Frances Hewitt) 등 인터FC 회원들이 레스토랑과 바를 돌며 모은 금액이다.

행사에 참여한 복이는 20만원을 쾌척했고, 서포터즈와 팬들도 함께 무등육아원을 찾아 봉사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FC 박병모 단장은 “여러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지내온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손길로 상한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는 일”이라며 “앞으로 무등육아원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바램을 전했다.



###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